

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주주총회소집공고.....	4
주주총회 소집공고.....	5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6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6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7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9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9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III. 경영참고사항	10
1. 사업의 개요.....	10
가. 업계의 현황	10
나. 회사의 현황	1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3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3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99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9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0

정 정 신 고 (보 고)

2017년 03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사퇴에 따른	(주1) 참조	(주2)참조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70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일부 변경	(주3)참조	(주4) 참조

(주1) 정정 전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해욱	1968.02.14	사내이사	최대주주	이사회
김재율	1957.10.20	사내이사	-	이사회
조현진	1966.11.01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충훈	1971.06.20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2005 ~ 2009 대림산업 부사장 2007 ~ 2013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2010 ~ 현재 대림산업 부회장	-
김재율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	2008 ~ 2010 LG화학 Yongxing 법인장 2011 ~ 2013 LG화학 ABS, EP 사업부장(전무) 2013 ~ 2015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부사장 2016 ~ 현재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사장	-

조현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특임교수	2006 ~ 2008 아리랑TV 보도팀장, 사장특보 2009 ~ 2013 청와대 제2부속실장,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3 ~ 현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특임교수	-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2003 ~ 20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회계감독국, 법무실 2010 ~ 2012 법무법인 세종 2012 ~ 2014 법률사무소 씨엠 베리타스 대표변호사 2014 ~ 현재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

(주2) 정정 후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해욱	1968.02.14	사내이사	최대주주	이사회
김재율	1957.10.20	사내이사	-	이사회
이충훈	1971.06.20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2005 ~ 2009 대림산업 부사장 2007 ~ 2013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2010 ~ 현재 대림산업 부회장	-
김재율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	2008 ~ 2010 LG화학 Yongxing 법인장 2011 ~ 2013 LG화학 ABS, EP 사업부장(전무) 2013 ~ 2015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부사장 2016 ~ 현재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사장	-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2003 ~ 20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회계감독국, 법무실 2010 ~ 2012 법무법인 세종 2012 ~ 2014 법률사무소 씨엠 베리타스 대표변호사 2014 ~ 현재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

(주3) 정정 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현진	1966.11.01	사외이사	-	이사회
이충훈	1971.06.20	사외이사	-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현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특임교수	2006 ~ 2008 아리랑TV 보도팀장, 사장특보 2009 ~ 2013 청와대 제2부속실장,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 홍보수석실 행정관 2013 ~ 현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특임교수	-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2003 ~ 20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회계감독국, 법무실 2010 ~ 2012 법무법인 세종 2012 ~ 2014 법률사무소 씨엠 베리타스 대표변호사 2014 ~ 현재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

(주4) 정정 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충훈	1971.06.20	사외이사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2003 ~ 20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회계감독국, 법무실 2010 ~ 2012 법무법인 세종 2012 ~ 2014 법률사무소 씨엠 베리타스 대표변호사 2014 ~ 현재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3월 2일

회 사 명 : 대림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한기, 이해욱, 김재율, 강영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전 화) 02-2011-7114
(홈페이지)<http://www.daeli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용완
(전 화) 02-2011-761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0기 정기주주총회)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임성교 (출석률 : 100%)	장달중 (출석률 : 75%)	김태희 (출석률 : 92%)	한준호 (출석률 : 83%)	박상욱 (출석률 : 100%)	신 마이클 영준 (출석률 : 50%)
제1차	2016.01.28	1호 : 제69기(2015년) 감사 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찬성
		2호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관련 건설출자자약정서 등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고려개발 제3차 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차	2016.02.25	1호 : 제69기(2015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없음 (신규선임)	불참
		2호 : 201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3호 : 공정거래법상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4호 : 안양 평촌 디지털 엠피아어 지식산업센터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5호 : 삼호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경영 신축공사 시공승계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제3차	2016.03.25	1호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해당사항
		2호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3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제4차	2016.04.28	1호 : 군산 디오션시티 A1블록 공동주택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차	2016.05.12	1호 : 제70기(2016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호 : 공정거래법상 3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3호 : 김해시 장유동 공동주택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4호 : 천안시 두정동 공동주택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제6차	2016.06.16	1호 : 원주시 반곡동 공동주택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e편한세상 밀양상문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공정거래법상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차	2016.07.14	1호 : 고려개발 양양군 양양읍 내곡리 공동주택사업 시공승계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없음 (퇴임)
제8차	2016.08.11	1호 : 제70기(2016년)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2호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서울재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건설출자자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 포천파워워 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호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차	2016.09.22	1호 : 제257회 공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2호 : 우리은행 여신거래 약정 연장 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삼호 남서울 오토하브 개발사업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차	2016.10.13	1호 : 대림코퍼레이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공동주택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2호 : 이사 경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제11차	2016.11.09	1호 : 제70기(2016년)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2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고려개발 구미 원호지구 공동주택 책임준공계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 상호 의정부 가농동 공동주택 사업 시공승계계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2차	2016.12.22	1호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3호 : 고려개발 자산담보부 대여 승인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위원회	임성균 (사외이사) 김태희 (사외이사) 신 마이클 영준 (사외이사)	2016.02.25	제1호 : 2015년 결산 검토의 건 제2호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임성균 (사외이사) 김태희 (사외이사) 박상욱 (사외이사)	2016.05.12	제1호 : 2016년 1분기 결산 검토의 건	가결
		2016.08.11	제1호 : 2016년 반기 결산 검토의 건	가결
		2016.11.09	제1호 : 2016년 3분기 결산 검토의 건	가결

● 재무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재무 위원회	김동수 (사내이사) 김재율 (사내이사) 신 마이클 영준 (사외이사)	2016.01.28	-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공동주택사업 중도금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 DSA 자금대여 승인의 건 - 수원순환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16.02.18	- 대림C&S 구주매출 승인의 건 - 남서울경전철㈜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하남미사지구 9블럭 오피스텔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화성 동탄 물류센터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신현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6.02.25	- 러시아 Vysotsk LNG Project 관련 Corporate Guarantee 발급 승인의 건 -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공동주택사업 금전소비대차 만기연장 승인의 건	가결 가결
		2016.03.14	-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사천 사주리 공동주택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파주 헤이리 G.Clef PF 대출 만기 연장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16.03.24	- DSA 자금대여 승인의 건	가결
		2016.04.14	- 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삼호 부산 수영만 우선수익권 매입 의무 기간 연장 승인의 건 - 부산명장1구역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금천구 독산동 주상복합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김한기 (사내이사) 김재율 (사내이사) 임성균 (사외이사)	2016.04.26	-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공동주택사업 금전소비대차 만기연장 승인의 건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16.05.12	-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공동주택사업 중도금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 DSA 지급보증 제공의 건	가결 가결
		2016.05.26	- 제256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김포구래 오피스텔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2016.06.16	- 아랍에미리트 Mashreq Bank Credit Line 연장의 건 - 인천 영종하늘도시 A-46블록 공동주택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오산 세마2차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 오산 세마2차 당사 대여금 집행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6.07.14	- 부산 명지지구 주상복합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마산 회원3구역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가결
		2016.07.28	- 경기철도(주) 주식 매입 승인의 건	가결
		2016.08.11	- 인천 검단2차 PF 대출 만기 차환 신용공여 승인의 건 - 양주 옥정 A-15블록 공동주택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2016.08.25	- 서울터널(주)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남서울경전철(주)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인천 검단2차 PF 대출 만기 차환 신용공여 승인의 건 - 부산 거제2구역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거제 고현항 2단계 매립사업 공동주택부지 용지매입계약 체결 승인의 건 - DSA 자금대여 연장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6.09.27	- 포항 장성동 PF 대출 만기 차환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6.10.13	- 케이알코폴리머(주) 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2016.10.27	- 제주 노형동 오피스텔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2016.11.09	- 인천 도화지구 물류센터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울산 지식산업센터 책임준공계약 체결 승인의 건 - DPI 자금대여 연장 승인의 건 - DSA 자금대여 승인의 건 - DSA 차입금 지급보증 승인의 건 - 사모증권 투자신탁 펀드 가입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6.11.24	- 사우디 Riyad Bank Credit Line 연장의 건	가결
		2016.12.15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HSBC은행 대출 승인의 건 - DSA 자금대여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016.12.22	-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공동주택사업 금전소비대차 만기연장 승인의 건	가결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보상위원회	김동수 (사내이사) 임성균 (사외이사) 장달중 (사외이사)	2016.02.17	- 2016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	이철균(사내이사)	2016.02.19	- 2016년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추천위원회	장달중(사외이사) 한준호(사외이사)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명	5,000	241	48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출자	고려개발(주) (계열회사)	2016.02.25	1,100	1.4

※ 상기 비율은 201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대림코퍼레이션 (계열회사)	HDPE/PB 판매, 구매 계약등	2016.01.01 ~ 2016.12.31	9,335	11.5
여천NCC(주) (공동기업)	원재료 및 Utility 매매 계약등	2016.01.01 ~ 2016.12.31	6,337	7.8

※ 상기 비율은 201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은 주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 건축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수주산업의 성격을 띠며, 생산활동이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생산장소의 지속성과 정착성이 없으며 이동성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산업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은 주택 및 빌딩건설에서부터 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산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 및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기술집약형 장치산업이자,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정밀화학 등 전방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목재, 철강, 섬유, 고무 등 천연 소재를 대체하는 기초소재 산업입니다. 아울러 세계 경기 및 수급상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형 사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건설사업부문]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과거와 달리, 앞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도 성장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 산업간의 의존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현재의 산업 추세로 인해, 건설업도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IT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녹색성장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시장규모, 수출규모 등 산업 내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기능성고분자재료를 이용한 특수소재의 개발로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입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및 경제성장의 추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 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이 일정한 사이클 내에서 변화하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석유화학 경기의 사이클은 7~10년입니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국 및 유럽, 미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및 정정(政情)에 따라 경기부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④ 경쟁요소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비중이 크지만 3D업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 외국인 숙련인력 투입 등으로 부족한 기능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자재 수급은 국내외 건설 경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진행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자체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사업 분야 및 SOC 민간 투자는 금융권 및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범용위주의 기존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시장 Share를 가늠하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등 저가 원료 개발 등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제품의 차별화 및 고객가치향상이 주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⑤ 자원조달상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비중이 크지만 3D업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 외국인 숙련인력 투입 등으로 부족한 기능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자재 수급은 국내외 건설 경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진행되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자체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사업 분야 및 SOC 민간 투자는 금융권 및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2016년 4분기에는 PE부문에서 원료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개선이 지속되었습니다.

2017년 1분기에는 2016년 4분기 대비 원료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수익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B부문은 중국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요 정체와 경쟁사 공장 재가동으로 인한 공급 증가 효과로 수익이 일부 하락하였으나, 공장 증설 및 원가 절감 노력으로 꾸준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16년은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의 산업시설 투자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정치 불안정 확대와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건축사업은 각종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마케팅 전략으로 7조 570억원의 수주와 23,000여 세대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업계상위권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플랜트사업은 대외적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차별화된 시장 접근전략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3조 규모의 Esfahan Refinery Upgrading Project의 LOA를 체결하면서 이란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토목시장은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어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원가혁신활동에 힘쓰는 등 내실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은 원료 가격 하락과 고수익지역 판매 비중 확대로 인해 수익성이 대폭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실행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고, PB 증설 사업을 통한 Capa를 확대하여 향후 매출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로 구성된 건설사업부문과 석유화학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건설사업부문]

2016년 수주액은 K-IFRS 연결기준 10조 4,379억원으로 국내수주 7조 7,671억원, 해외수주 2조 6,708억원을 달성했습니다.

※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당사의 주요제품은 PB, PE, FILM 등이 있으며 주요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시장은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의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주 수요처는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정부 발주 위주의 기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대규모 장치산업(발전소, 원유저장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설시장의 발주처는 정부 또는 규모가 큰 민간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공업체는 해당 공정별 및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정책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으로서 그 성장성은 자동차, 전자, 섬유 및 특수소재 등 전방산업의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입니다. 최근 흐름은 기초원료인 석유, 천연가스, 세일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에 저가의 원료를 기반으로 한 범용제품의 생산거점이 옮겨가는 추세에 있으며, 기존 일본 및 한국의 업체들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화제품 위주의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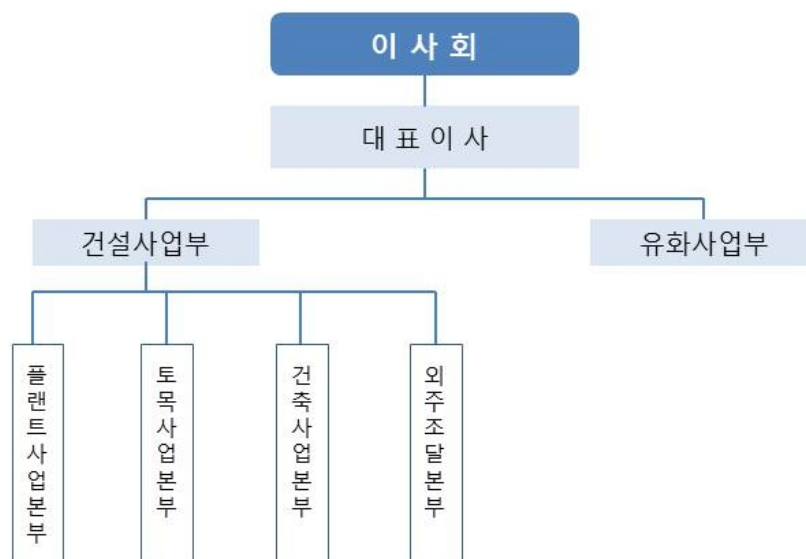
[건설사업부문]

당해 사업연도 중 구체화된 신규사업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선진 외국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사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69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70(당) 기말		제 6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6,495,943,351,599		7,177,289,251,32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77,177,304,003		2,167,919,586,495	
2. 단기금융상품	47,978,774,320		40,894,123,5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47,328,279,867		2,367,748,628,217	
4. 미청구공사	989,885,937,710		1,214,351,264,527	
5. 재고자산	901,945,572,542		829,385,504,599	
6. 매도가능금융자산	1,010,000		10,330,000	
7. 파생상품자산	3,069,190,489		1,889,143,013	
8. 당기법인세자산	6,498,703,457		6,101,151,770	
9. 기타유동자산	512,879,215,202		548,989,519,207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9,179,364,009		-	
II. 비유동자산		5,895,565,843,862		4,887,604,618,527
1. 장기금융상품	9,171,608,987		1,977,717,719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71,514,734,766		844,414,929,727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1,132,461,585,684		931,713,111,869	
4. 매도가능금융자산	464,516,955,540		324,361,651,148	
5. 유형자산	1,964,245,605,479		1,831,589,716,813	
6. 투자부동산	826,713,067,021		741,835,165,925	
7. 무형자산	61,366,044,401		65,802,609,264	
8. 파생상품자산	1,911,819,893		-	
9. 이연법인세자산	196,250,260,053		145,863,780,401	
10. 기타비유동자산	67,414,162,038		45,935,661	
자 산 총 계		12,391,509,195,461		12,064,893,869,855

부	채			
I. 유동부채		4,787,446,821,272		5,107,284,575,63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27,738,638,946		1,883,973,847,426	
2. 초과청구공사	1,261,754,266,586		1,039,769,742,991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898,758,661,202		1,263,988,264,776	
4. 당기법인세부채	112,355,951,539		91,960,258,992	
5. 기타총당부채	126,021,247,987		54,638,820,056	
6. 파생상품부채	13,398,399,060		36,110,897,604	
7. 기타유동부채	447,419,655,952		736,842,743,789	
II. 비유동부채		2,458,688,301,179		2,151,839,981,150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2,051,727,155		110,099,667,391	
2. 차입금및사채	1,928,977,317,156		1,690,744,277,667	
3. 순확정급여부채	34,933,882,764		37,802,870,196	
4. 하자보수충당부채	90,953,719,946		73,133,775,274	
5. 기타충당부채	41,560,373,615		42,403,229,125	
6. 금융보증부채	64,063,539,468		66,354,801,585	
7. 파생상품부채	1,448,692,793		4,595,871,563	
8. 이연법인세부채	110,533,514,424		101,085,672,847	
9. 기타비유동부채	24,165,533,858		25,619,815,502	
부 채 총 계		7,246,135,122,451		7,259,124,556,784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610,934,792,445		4,344,788,789,630
1. 자본금	218,500,000,000		218,5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538,838,723,465		504,890,029,083	
3. 이익잉여금	3,918,484,287,920		3,672,589,573,291	
4. 기타자본구성요소	(64,888,218,940)		(51,190,812,744)	
II. 비지배지분		534,439,280,565		460,980,523,441
자 본 총 계		5,145,374,073,010		4,805,769,313,07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391,509,195,461		12,064,893,869,855

②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매출액	9,853,769,999,134	9,513,673,300,027
II. 매출원가	8,877,857,221,491	8,736,535,496,540
III. 매출총이익	975,912,777,643	777,137,803,487
판매비및관리비	556,525,041,366	505,369,408,190
IV. 영업이익	419,387,736,277	271,768,395,297
기타수익	110,762,559,758	159,431,356,424
기타비용	323,164,961,532	276,174,611,625

금융수익	86,096,215,903		185,769,144,986	
금융비용	113,247,211,039		87,064,240,351	
지분법투자손익	256,570,105,173		182,518,830,682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6,404,444,540		436,248,875,413
법인세비용		143,209,118,258		219,279,782,529
VI. 당기순이익		293,195,326,282		216,969,092,884
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65,302,610,796		206,767,952,769	
비지배지분	27,892,715,486		10,201,140,115	
VIII.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868		5,352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918		5,402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당기순이익		293,195,326,282		216,969,092,884
II. 기타포괄손익		(26,053,689,281)		(87,557,859,86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2,082,998,468)		(26,188,357,316)	
2. 지분법이익잉여금	2,404,084		1,165,900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926,537,053		6,286,817,78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066,941,729		(13,477,617,625)	
2. 해외사업환산손익	(13,217,695,794)		(52,057,613,862)	
3. 지분법자본변동	1,028,578,380		444,455,144	
4. 부의지분법자본변동	(12,589,120,088)		(6,389,607,154)	
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811,663,823		3,822,897,268	
III. 당기총포괄이익		267,141,637,001		129,411,233,024
V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2,292,302,422		120,916,157,372	
비지배지분	24,849,334,579		8,495,075,652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총 계
		주식발행	합병차익	자기주식	기타				

		초과금		처분이익					
I. 2015.01.01(전기초)	218,5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4,352,668,808)	3,489,561,795,235	14,970,807,940	237,125,527,582	4,465,255,062,130
1. 연차배당	-	-	-	-	-	(4,050,000,000)	-	(4,918,710,223)	(8,968,710,223)
2. 총포괄손익	-	-	-	-	-	187,077,778,056	(66,161,620,684)	8,495,075,652	129,411,233,024
당기순이익	-	-	-	-	-	206,767,952,769	-	10,201,140,115	216,969,092,88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10,185,848,055)	-	(10,185,848,05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52,139,775,702)	82,161,840	(52,057,613,862)
지분법자본변동	-	-	-	-	-	-	402,396,308	-	402,396,308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4,238,393,235)	(1,578,027,385)	(5,816,420,620)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3,697,319)	-	(1,584,562)	(5,281,88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9,686,477,394)	-	(208,614,356)	(19,895,091,750)
3. 종속기업지분변동으로 인한 증감	-	-	-	-	(206,902,290)	-	-	14,911,554,289	14,704,651,999
4.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205,367,076,141	205,367,076,141
II. 2015.12.31(전기말)	218,5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4,559,571,098)	3,672,589,573,291	(51,190,812,744)	460,980,523,441	4,805,769,313,071
III. 2016.01.01(당기초)	218,5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4,559,571,098)	3,672,589,573,291	(51,190,812,744)	460,980,523,441	4,805,769,313,071
1. 연차배당	-	-	-	-	-	(11,770,000,000)	-	(14,643,321,316)	(26,413,321,316)
2. 총포괄손익	-	-	-	-	-	256,172,339,830	(13,880,037,408)	24,849,334,579	267,141,637,001
당기순이익	-	-	-	-	-	265,302,610,796	-	27,892,715,486	293,195,326,28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5,325,938,512	(3,871,725)	5,322,066,78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13,217,979,511)	283,718	(13,217,695,793)
지분법자본변동	-	-	-	-	-	-	780,868,746	-	780,868,746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6,768,865,155)	(3,016,006,535)	(9,784,871,690)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2,404,084	-	-	2,404,08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9,132,675,050)	-	(23,786,365)	(9,156,461,415)
3. 미반영 지분법이익잉여금 실현 등	-	-	-	-	-	1,492,374,799	-	-	1,492,374,799
4. 종속기업지분변동으로 인한 증감	-	-	-	-	32,917,737,944	-	-	63,161,810,785	96,079,548,729
5. 연결범위의 변동	-	-	-	-	1,030,956,438	-	182,631,212	90,933,076	1,304,520,726
IV. 2016.12.31(당기말)	218,5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610,876,716)	3,918,484,287,920	(64,888,218,940)	534,439,280,565	5,145,374,073,010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6,996,141,148		384,858,216,292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66,336,108,070		350,944,823,483	
가. 당기순이익	293,195,326,282		216,969,092,884	
나. 조정	418,948,698,910		212,781,667,834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545,807,917,122)		(78,805,937,235)	
2. 이자의 수취	36,481,110,181		127,595,597,543	
3. 이자의 지급	(96,159,491,204)		(72,269,709,532)	
4. 배당금의 수취	208,083,811,150		86,395,773,133	
5. 법인세의 납부	(167,745,397,049)		(107,808,268,33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9,424,711,359)		(102,005,211,06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5,517,047,608		736,187,467,095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8,549,211,400		35,200,000,000	
나. 단기대여금의 감소	35,539,683,065		155,784,848,886	
다.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36,995,272		371,995,200	
라. 장기대여금의 감소	216,984,635,854		474,905,604,315	
마. 보증금의 감소	-		20,200,000	
바.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15,600,000,000		6,123,500,000	
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78,728,682		10,406,329,563	
아. 토지의 처분	684,918,000		3,743,456,640	
자. 구축물의 처분	15,679,200		18,998,750	
차. 기계장치의 처분	592,468,549		262,619,805	
카. 차량운반구의 처분	1,390,105,336		419,958,824	
타.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3,219,825,180		404,517,314	
파.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		731,850	
하. 정부보조금의 수령	363,502,432		864,181,818	
거. 투자부동산의 처분	-		7,600,000,000	
너. 무형자산의 처분	1,761,294,638		170,000,000	
더. 지배력 획득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9,890,524,13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14,941,758,967)		(838,192,678,162)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5,633,862,220		40,844,123,500	
나. 단기대여금의 증가	305,805,419,235		144,602,939,612	
다.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0,760,452,507		1,437,998,480	
라. 장기대여금의 증가	169,742,207,548		251,693,274,344	
마. 보증금의 증가	-		246,750,000	
바.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91,880,596,426		132,079,965,118	
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23,627,373,386		66,738,513,913	
아. 토지의 취득	-		115,506,000	
자. 건물의 취득	1,250,866,065		11,920,036,494	
차. 구축물의 취득	2,284,074,768		2,801,771,563	
카. 기계장치의 취득	49,865,028,020		47,187,395,627	
타. 차량운반구의 취득	1,340,357,188		2,903,170,739	
파.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25,083,250,302		29,328,499,502	
하.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74,229,178,442		101,203,654,282	
거. 정부보조금의 반환	-		145,877,000	
너. 투자부동산의 취득	1,812,927,940		-	
더. 무형자산의 취득	11,458,290,423		4,943,201,988	
러. 지배력 상실로 인한 순현금흐름	167,874,497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270,010,018)		510,682,474,67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97,218,814,438		2,468,374,179,631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1,568,177,828,797		1,595,935,079,631	
나. 장기차입금의 차입	465,519,035,658		379,023,500,000	
다. 사채의 발행	442,000,000,000		478,415,600,000	
라. 종속기업 유상증자	52,057,695,608		15,000,000,000	
마. 종속기업주식의 일부처분	69,464,254,375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43,488,824,456)		(1,957,691,704,953)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1,742,986,898,744		1,386,841,135,699	

나.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92,541,990,350		378,835,600,000	
다. 장기차입금의 상환	78,337,000,000		186,000,000,000	
라. 신주발행비의 지급	-		295,348,000	
라. 사채발행비의 지급	1,520,400,000		-	
마. 배당금의 지급	28,092,535,362		5,719,621,254	
바.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10,0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598,698,580,229)		793,535,479,903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67,919,586,495		1,372,464,345,557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956,297,737		1,919,761,03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77,177,304,003		2,167,919,586,495

⑥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1976년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석유화학(주)과 함께 여천 NCC(주)를 설립하였고, 1999년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건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림엔지니어링(주)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토목, 건축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18,500백만원(우선주 21,000백만원 포함)이며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주)대림코퍼레이션(21.67%)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3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의 회계처리를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T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로 측정하도록 분류하여야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합니다('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중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금융자산이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투자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로부터의 주요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의 표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다면 당기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을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접근법에서는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손상사건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기업은 항상 기대신용손실과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대신용손실금액은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측정할 예정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위험회피회계에 적극적인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극적인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요구되었던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처럼 매매목적으로 분류할 예정이므로 해당 파생상품이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분양공사의 진행기준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이견 등으로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 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이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 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 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 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기준으로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1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 건설계약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도급계약 등에 따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 되는 외환차이
-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고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세전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건축물	8~40년
기계장치	4~15년
차량운반구	4~5년
기타의유형자산	1~12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채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이동평균법(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이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며,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6)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받

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는 34,934백만원(전기말: 37,803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1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주석 2.(1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2.(2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9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 및 미청구공사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의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며 공사현장의 장기간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현장의 공사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연결실체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예상되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세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이러한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영업권 손상

영업권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별도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7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69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70(당) 기말		제 6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5,914,347,672,085		6,517,169,983,83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18,183,564,540		1,840,587,484,375	
2. 단기금융상품	31,228,774,320		20,844,123,5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19,538,403,571		2,213,370,879,123	
4. 미청구공사	970,038,345,025		1,141,568,580,968	
5. 재고자산	846,013,721,754		772,870,023,333	
6. 파생상품자산	3,069,190,489		1,889,143,013	
7. 기타유동자산	521,197,989,952		526,039,749,527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5,077,682,434		-	
II. 비유동자산		4,659,840,438,529		3,732,997,930,990
1. 장기금융상품	9,142,608,987		1,616,722,287	
2. 장기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5,000,000,000		15,000,000,000	
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3,089,599,303		886,109,779,286	
4. 종속기업주식	802,996,086,531		824,434,609,424	
5.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674,199,833,323		664,587,986,305	
6. 매도가능금융자산	408,852,623,923		268,113,045,788	

7. 유형자산	742,363,073,122		679,023,059,005	
8. 투자부동산	293,834,772,003		203,078,404,882	
9. 무형자산	29,776,605,343		30,288,721,623	
10. 파생상품자산	1,911,819,893		-	
11. 이연법인세자산	281,259,254,063		160,699,666,729	
12. 기타비유동자산	67,414,162,038		45,935,661	
자 산 총 계		10,574,188,110,614		10,250,167,914,829
부 채				
I. 유동부채		4,371,517,058,114		4,341,088,146,49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24,634,034,042		1,622,028,008,952	
2. 초과청구공사	1,196,486,379,681		788,919,130,271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799,460,990,911		1,110,881,300,908	
4. 당기법인세부채	101,796,964,349		81,701,886,594	
5. 기타충당부채	117,544,999,135		46,030,315,686	
6. 파생상품부채	13,398,399,060		36,110,897,604	
7. 기타유동부채	418,195,290,936		655,416,606,475	
II. 비유동부채		1,587,489,077,455		1,322,734,115,064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4,608,786,548		67,448,801,080	
2. 차입금및사채	1,201,884,191,291		1,026,180,564,316	
3. 순확정급여부채	27,158,718,514		26,363,922,232	
4. 하자보수충당부채	89,970,021,946		72,150,077,274	
5. 기타충당부채	39,953,213,516		40,652,415,003	
6. 금융보증부채	64,063,539,468		66,354,801,585	
7. 파생상품부채	1,448,692,793		4,595,871,563	
8. 기타비유동부채	18,401,913,379		18,987,662,011	
부 채 총 계		5,959,006,135,569		5,663,822,261,554
자 본				
I. 자본금	218,500,000,000		218,5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539,449,600,181		539,449,600,181	
III. 이익잉여금	3,860,602,384,825		3,843,215,477,127	
IV. 기타자본구성요소	(3,370,009,961)		(14,819,424,033)	
자 본 총 계		4,615,181,975,045		4,586,345,653,27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574,188,110,614		10,250,167,914,829

②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매출액	8,654,021,477,491	8,135,324,528,905
II. 매출원가	7,829,558,469,601	7,277,650,330,428
III. 매출총이익	824,463,007,890	857,674,198,477

판매비및관리비	499,756,307,733		432,991,344,294	
IV. 영업이익		324,706,700,157		424,682,854,183
기타수익	362,834,025,937		271,722,916,501	
기타비용	612,169,818,624		584,484,825,499	
금융수익	95,435,161,244		222,713,867,328	
금융비용	84,561,865,576		79,811,308,70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6,244,203,138		254,823,503,807
법인세비용		48,702,756,567		127,752,744,519
VI. 당기순이익		37,541,446,571		127,070,759,288
VII.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968		3,287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018		3,337

③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당기순이익		37,541,446,571		127,070,759,288
II. 기타포괄손익		3,064,875,199		(8,665,547,21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1,061,396,930)		(25,103,327,924)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676,858,057		6,075,005,35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315,049,534		(1,267,304,455)	
2. 해외사업환산손익	4,388,606,525		11,323,392,133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2,254,241,987)		306,687,678	
III. 당기총포괄이익		40,606,321,770		118,405,212,078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계
		주식발행 초과금	합병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I. 2015.1.1(전기초)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739,223,040,405	(25,182,199,389)	4,471,990,441,197
1. 연차배당	-	-	-	-	(4,050,000,000)	-	(4,050,000,000)
2. 총포괄손익	-	-	-	-	108,042,436,722	10,362,775,356	118,405,212,078
당기순이익	-	-	-	-	127,070,759,288	-	127,070,759,28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19,028,322,566)	-	(19,028,322,56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960,616,777)	(960,616,77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1,323,392,133	11,323,392,133
II. 2015.12.31(전기말)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843,215,477,127	(14,819,424,033)	4,586,345,653,275
III. 2016.1.1(당기초)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843,215,477,127	(14,819,424,033)	4,586,345,653,275
1. 연차배당	-	-	-	-	(11,770,000,000)	-	(11,770,000,000)
2. 총포괄손익	-	-	-	-	29,156,907,698	11,449,414,072	40,606,321,770
당기순이익	-	-	-	-	37,541,446,571	-	37,541,446,57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8,384,538,873)	-	(8,384,538,87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7,060,807,547	7,060,807,54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4,388,606,525	4,388,606,525
IV. 2016.12.31(당기말)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860,602,384,825	(3,370,009,961)	4,615,181,975,045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7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2016년 3월 25일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33,766,926,784	962,923,834,482	824,826,913,264	932,869,349,9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384,538,873)		(19,028,322,566)	
당기순이익	37,541,446,571		127,070,759,288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9,677,910,132	9,677,910,132	13,844,576,798	13,844,576,798
III. 합계		972,601,744,614		946,713,926,784
IV.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1,177,000,000	
재무구조개선적립금	1,177,000,000			
배당금	-		-	
현금배당	-		-	
주당배당금(률) :	-		-	
보통주 : 당기 300원	11,770,000,000	12,947,000,000	11,770,000,000	12,947,000,000
(6%)	11,770,000,000		11,770,000,000	
전기 300원				
(6%)				
우선주 : 당기 350원				
(7%)				
전기 350원				
(7%)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59,654,744,614		933,766,926,784

⑥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2,871,074,503		742,099,306,225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236,272,911,530		682,177,463,091	
가. 당기순이익	37,541,446,571		127,070,759,288	
나. 조정	618,084,817,157		510,826,236,813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419,353,352,198)		44,280,466,990	
2. 이자의 수취	33,059,611,685		125,286,386,146	
3. 이자의 지급	(62,888,358,936)		(64,899,132,910)	
4. 배당금의 수취	205,171,560,300		93,927,464,155	
5. 법인세의 납부	(148,744,650,076)		(94,392,874,25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1,365,624,016)		(563,545,441,10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5,116,929,943		678,976,832,167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8,549,211,400		33,200,000,000	
나. 단기대여금의 감소	35,304,506,320		150,512,464,000	
다.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00,000		-	
라. 장기대여금의 감소	215,027,197,040		474,395,202,647	
마. 종속기업주식의 처분	73,739,574,375		-	
바.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15,600,000,000		-	
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64,370,552		10,402,892,906	
아. 토지의 처분	684,918,000		1,787,070,000	
자. 기계장치의 처분	237,949,390		334,718	
차. 차량운반구의 처분	625,502,276		17,018,182	
카.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2,937,165,952		27,667,896	
타. 정부보조금의 수령	349,240,000		864,181,818	
파. 투자부동산의 처분	-		7,600,000,000	
하. 무형자산의 처분	1,596,294,638		17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06,482,553,959)		(1,242,522,273,271)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8,933,862,220		20,844,123,500	
나. 단기대여금의 증가	305,245,269,164		144,359,794,726	
다.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7,610,452,499		1,400,000,000	
라. 장기대여금의 증가	402,212,797,858		777,090,474,344	
마.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300,000,000		35,047,036,177	
바.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20,531,759,452		132,079,965,118	
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22,257,567,400		66,708,408,913	
아. 건물의 취득	619,633,290		-	
자. 기계장치의 취득	28,004,449,932		1,093,734,164	
차. 차량운반구의 취득	1,049,918,503		1,579,866,131	
카.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6,485,484,192		6,644,734,002	
타.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76,631,958,890		54,672,128,440	
파. 투자부동산의 취득	842,927,940		-	
하. 무형자산의 취득	5,756,472,619		1,002,007,75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1,310,916,720)		424,056,757,50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60,907,908,506		2,331,787,665,763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1,531,457,708,506		1,578,121,565,763	
나. 장기차입금의 차입	409,450,200,000		324,800,000,000	
다. 사채의 발행	420,000,000,000		428,866,1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12,218,825,226)		(1,907,730,908,254)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1,721,173,384,876		1,364,780,908,254	
나.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702,755,040,350		352,900,000,000	
다. 장기차입금의 상환	75,000,000,000		186,000,000,000	
라. 사채발행비	1,520,400,000		-	
마. 배당금의 지급	11,770,000,000		4,05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529,805,466,233)		602,610,622,63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840,587,484,375		1,236,040,860,159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401,546,398		1,936,001,586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18,183,564,540		1,840,587,484,375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1976년 한국거래소에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케미칼(주)와 함께 여천NCC(주)를 설립하였고, 1999년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건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림엔지니어링(주)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토목, 건축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18,500백만원(우선주 21,000백만원 포함)이며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주)대림코퍼레이션(21.67%)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3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 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른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 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 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 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의 회계처리를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 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2017년 1월1일 이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T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로 측정하도록 분류하여야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합니다('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투자 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로부터의 주요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의 표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다면 당기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짧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이 미미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을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접근법에서는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손상사건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기업은 항상 기대신용손실과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대신용손실금액은 최초 인식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측정할 예정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라.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위험회피회계에 적극적인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극적인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요구되었던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동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처럼 매매목적으로 분류할 예정이므로 해당 파생상품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분양공사의 진행기준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이견 등으로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기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종속기업주식,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주식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당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당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당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당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을 제 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 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기준으로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도급계약 등에 따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 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당사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 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세전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건축물	20~40년
기계장치	4~8년
차량운반구	4~5년
기타의유형자산	4~12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이동평균법(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0)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며,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파생상품

당사는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는 27,159백만원(전기말: 26,364백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주석 1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주석 2.(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2.(22)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8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 및 미청구공사 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의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으며 공사현장의 장기간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현장의 공사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사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예상되는 투자, 인건비증가 및 배당액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세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이러한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70기(당기)	제69기(전기)
주당배당금	보통주	300원	300원
	우선주	350원	350원
액면배당율	보통주	6%	6%
	우선주	7%	7%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해욱	1968.02.14	사내이사	최대주주	이사회
김재율	1957.10.20	사내이사	-	이사회
이충훈	1971.06.20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2005 ~ 2009 대림산업 부사장 2007 ~ 2013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2010 ~ 현재 대림산업 부회장	-
김재율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	2008 ~ 2010 LG화학 Yongxing 법인장 2011 ~ 2013 LG화학 ABS, EP 사업부장(전무) 2013 ~ 2015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부사장 2016 ~ 현재 대림산업 유화사업부 사장	-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2003 ~ 20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회계감독국, 법무실 2010 ~ 2012 법무법인 세종 2012 ~ 2014 법률사무소 씨엠 베리타스 대표변호사 2014 ~ 현재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충훈	1971.06.20	사외이사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이충훈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2003 ~ 201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회계감독국, 법무실 2010 ~ 2012 법무법인 세종 2012 ~ 2014 법률사무소 씨엠 베리타스 대표변호사 2014 ~ 현재 법무법인 씨엠 대표변호사	-
-----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2016년)	당 기 (2017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명 (5명)	9명 (5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50억원	50억원